

큰스님 수행한담

실천하면 운명 바뀌죠



◇ 지난 81년 인천 보현정사에서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는 이두스님.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행이란 모든 생활의 보살처럼 즉, 지표있는 방향을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전라도에서 거지행학을 결행했습니다. 1년 남짓 거지행학에서 나는 망상과 번뇌의 소멸만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을 접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작은 휴집을 짓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소년들이 어디에서건 생활인이 되기 위해선 천자문과 주판, 부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불심을 갖게 하기 위해 초발심지경문, 관세음경전 등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한문 지식도 많은 노인을 초청하여 한문을 가르치게 했으며, 참선방을 만들어 참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선도 지도하였지요.

의 선방과 용현사 토굴을 오가며 정진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을 찾는 도라는 것은 알고보면 세속과는 반대방향에서 찾아지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툰 것을 익숙하게 익히고 익혀져 있는 것을 서툴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중생은 다생겁래로 익혀온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과 타고난 성질입니다.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고 익히지 않아도 각각 달리 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도득년도 후천적으로 익혀서 된다고 하지만 소질이 있어야 하고 소질이 있으므로 배우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잡다단한 업을 쓰지 않고 곱잡고 서툴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일 것입니다.

들기로, 제석전은 매로 변해 뒤따라 갔습니다. 비둘기는 곧바로 왕의 겨드랑이 아래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했지요. 때가 시비왕에게 "나에게 비둘기를 주시오" 하자 왕은 "내가 먼저 이것을 얻었다.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려는 결심을 일으킨 때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원을 세운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매는 "그 일체 중생에 나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가 고프니다. 비둘기무게 만큼의 살을 원할 뿐입니다" 하자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하여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훨씬 무거워서 차례로 다른 쪽 넓적다리, 가슴과 목, 어깨의 살을 베어 다 올려놓아도 비둘기 무게 만큼은 못 미쳤습니다. 마침내 시비왕은 괴무성의 몸으로 저울에 오르자 무게가 똑같아졌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물론 비둘기 한마리의 생명을 내용보다 더 아낀 전생 부처님의 보살도를 나타내지만 모든 중생은 그 생명의 귀중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많고 적음이 없이 똑같이 귀귀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는 조그만 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그러한 투철하고도 절박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 세웠으면 미련할 정도의 굳센 믿음으로 목숨 건 정진을 해야합니다”

“마음수양은 환경으로부터 독립이니 깨치지 못하면 극락도 사바 됩니다”

다. 따라서 내생은 바로 그 업을 바탕으로 생겨나며 금생에 형성된 업심이 내생에 숙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생의 숙명은 과거 전생에 있었던 업심의 결과인 셈입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때 금생에서든 내생에서든 운명은 바뀝니다. <반야심경>은 “정신과 육체(오온)가 다 공한 것을 조견함으로써 일체 고에서 벗어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보태지지 않고 덜어지지 않는 공(空)이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망상과 번뇌가 따르고 당연히 업심은 깊어질 따름이라는 것이요.

점 커져갔고 마침내 '농인교민원학당'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타지에서 학당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상심을 가르쳤고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짐착이 생기면 도심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갈래 학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아쉬움과 집착이 생기는 것을 알고 절실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학당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광주의 한 유학자를 찾아가 학당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추머리로 유명한 코메디언 김병조씨도 이 학당에서 한문을 배웠다는군요.

하게 만들고 공부를 익히며 익힌 것을 서툴게 하고 서툰 것을 익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관음사에 주리를 들고 부리는 간혹 수행남자나 불자들이 찾아와 공부하는 법을 물곤 합니다. 그때마다 '쌀 한 섬 능히 질 수 있느냐'는 은사스님의 질문이 생각납니다. 스님이 말한 '한 섬 무게'는 단지 '몇 킬로그램'의 물리적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시비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석전은 시비왕이 보시 지계 정진 지혜를 모두 갖춰 머지 않아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로 했지요. 비스바카르만신은 비

장성 갈래에 도착해서 1년간의 거지만

나와 경전



유교경



법혜 동국대 경주정각원장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무렵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수반열반교경> <불유교경> <불수열반약계경> <불일열반약계경> 등 여러가지 명칭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역본은 구마라집(344~413) 삼장의 번역본이며, <고려대장경>(K 13~1180) <대정신수대장경>(T 12~1110) 등에 있다.

한역은 어휘 구사나 문체에 있어서 매우 유려하며, 또한 부처님의 임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간결하게 설하고 있다. 때문에 예로부터 널리 보급되었으며 주석서나 강론의 종류도 매우 많다. 특히 선종에서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 <유교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해인사 강원에도 다닐 때였다. 도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이 경을 읽고 그 내용이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하여 정말로 부처님의 유언을 듣는 것 같았다. 이제 40여년이 지난 부처님에 와서도 이 경전을 대하게 되면 항상 웃음을 머미고 자세를 바로 고치게 된다. 이러한 의경심은 순수했던 초발심 시절에 받았던 영향만은 아닌 것이다. 소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참회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출가제자나 재가제자를 막론하고 이 경전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주 독송하여 부처님의 유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교단의 현실은 매우 엄려스럽다.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때면 언제나 이 <유교경>을 읽는다. 그리고 종단의 앞날을 생각해 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부처님 최후가르침...내용엄숙·경건 “계율 스승삼아 부지런히 정근하라”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5세에 진리를 깨치고 최초의 설법을 녹야원에 서 고집멸도의 4성제를 설하여 아야와 교진여 등 5비구를 교화하였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 최후의 설법에서 수발타를 구제하여 중생제도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데 사라쌍수 사이에서 이제 곧 입멸할 것임을 먼저 말한다. 그다음 여러 제자들에게 입멸 후에는 바라제목을 스승으로 삼아 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오욕을 삼가하며, 적정(寂靜)을 구하도록 노력하고, 정(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을 설한다. 마지막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스러운 바가 있으면 당장 질문하도록 세번 권하는데, 이에 대해 제자들은 침묵으로써 의문은 곧 자비심으로써 법신의 상주와 세간의 무상을 설하며, 슬퍼하지 말고 노력하여 빨리 해탈을 얻어 지혜의 광명으로써 무명의 암흑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마무리한다. 필자가 이 경전을 처음으로 읽게 된 것은 해인사 백련암에 살면서 큰 절인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는 누구나 계율을 잘 지켜라. 계율을 잘 지키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불빛을 만난 듯 하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듯 하리니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인 줄 알라. 설사 내가 두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지금으로부터 나의 모든 제자들이 서로 타다하면서 수행하면 여러의 법신이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으리니 인간 무상을 철저히 느껴 모이면 반드시 흠여지는 이치를 슬프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는 본래 영원한 것이 없나니 부지런히 정근하여 해탈의 길을 찾아 지혜로써 모든 어두움을 없애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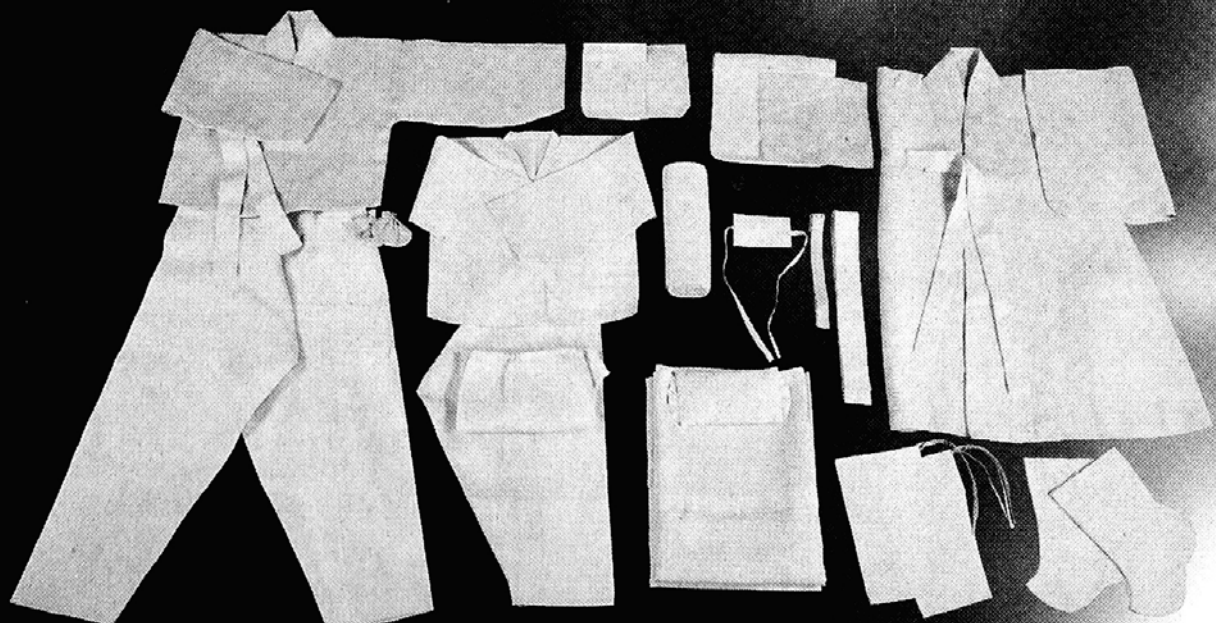
내가 지금 열반에 드는 것은 나쁜 병을 제거함과 같느니라. 이 몸은 마땅히 버려야 할 죄악의 물건이요, 허망한 물건이니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 빠져서는 안되느니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몸을 버리는 것이 원수를 죽이는 것처럼 기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이것으로 그리고 더 말할지 않다. 시간이 다오면 나는 열반에 들고자 한다. 이것이 곧 내가 최후에 남길 말이 되리라.”

“정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시오!

極樂往生服

“운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운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운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운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을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운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02)3270-3366 팩스: (02)3270-3498